

'100년 전통' 순천저전성당, 시민에게 역사정원으로 개방

도시재생 사업으로 담장 허물고 지역주민 공유 역사·문화 탐방 기회·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

순천시가 지난 2019년 저전성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3년여 만에 저전성당 주변 환경정비를 마무리하고 저전성당을 역사정원으로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저전성당(윤용남 가리노 주임신부)은 1919년 순천공소로부터 시작하여 순천지역은 물론 전남동부지역의 모(母)본당으로 천주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자원과 넓은 휴게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행동선이 단절되는 등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

순천시가 지난 2018년 저전동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에 선정된 이후 저전성당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 주민들과 휴게공간을 공유하고 골목길을 연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20일 공사를 마무리하고 성당

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 주민과 방문객에게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의 기회와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성당 안의 정원과 휴식공간은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개방정원으로, 사무실 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해 개방화장실로 만들었다. 성당의 높은 담장에 가로 막혔던 골목길도 연결되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순천시는 저전성당과 인접한 순천남초등학교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놀이터 정원을 조성하여, 남초등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 친화적 놀이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방치되어 있던 남초등학교 남관 건물을 순천시에서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통해 어른·아이·청소년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복합 공유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작년 11월 '남초남관 공간설계 자문단 워크숍'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설계자문을 받았으며, 올해 6월 착공해 10월 개소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저전성당, 남초등학교 특화 재생사업을 통하여 시설이 개방되면,



지역 자산·거점시설로써 저전동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 탐방의 기회와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연계하여 원도심 부흥 및 상생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된다."면서 "장천동, 역세권 등 인접 도시재생구역과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교통안전·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



광양시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 기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산림 분야 그린 뉴딜사업 일환으로 올해 신규 추진하며,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로변 띠 녹지를 조성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시는 올해 광양초등학교 통학로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내달 공사 착수를 목표로 도로관리

부서와 사전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학교, 어린이집, 지역민과 전문가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202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전수조사해 자녀안심 그린숲을 4곳 더 조성할 예정이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도시 생활권 녹화사업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 동천 현장투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는 23일 2023정원박람회 예정지인 동천 일원에서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순천시인 모두가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연관 사업 발굴을 위한 지

차 확대 운영, 저류지 공원 건너편 휴게공간 조성, 장대공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허석 조직위 이사장은 현장 투어를 통해 "기존 구조물을 예술과 정원에 맞는 순천 스타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고흥군, 청년 일자리에 4억원 추가 투입

내사랑 고흥 기금 운용심의회, 지역청년 창업·가업승계 지원

고흥군은 23일 내 사랑 고흥 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지역청년의 창업과 가업승계 등을 위해 4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군은 이번 제2회 추경·내 사랑 고흥 기금·에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청년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을 기금에 추가 편성하여 청년층 유치를 통한 인구구조 선순환 체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것.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은 (조) 부모의 가업을 승계 받은 청년에게 농업시설물 설치 및 점포 리모델링 등 가업 승계 비용을 1인당 2000만원까

지 지원한다.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은 창업에 필요한 상품 개발비, 홍보·마케팅비,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1명(1명)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청년 CEO에게 생 산품 홍보·마케팅비 등을 1인당 2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내 사랑 고흥 기금은 당초 본예산에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지원 등 5개 사업, 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2회 추경에 3개 사업, 4억원을 추가 반영해 우리지역 청년 취·창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총 13억원이 투입된다.

고흥=김택영기자

여수시, 다양한 청년 정책 미래 함께 열다

여수시가 지역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시는 올 한해 52개 청년사업을 추진하여 700여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와 소통, 문화·교육, 주거·복지 등 청년의 삶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친다.

행안부 주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9개 사업(국도비 18억 원)이 선정되어 130여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대상 공공근로 19개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청년의 창업을 기획부터 안정화 시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창

업·창업 전문가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업종에 맞는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 자금 지원으로 청년의 도전이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희망학교와 청년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청년활동가 육성 및 벤처마케팅 원정대 운영 등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200만 원) 및 꿈프락돌 청년상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으며,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청년활동플랫폼이자 거점 공간으로 (가칭)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여수=오상호기자

시민 주도 박람회 관심↑ 지혜·역량 모으기 위해 마련 갤러리 가든·브릿지 가든 등 특색있는 정원 조성 계획

해와 역량을 모으기 위해 이번 현장투어를 마련했다.

동천 일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으로 2023정원박람회에 대비하여 갤러리 가든, 브릿지 가든 등 특색있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투어를 통해 저류지와 수변공원, 둔치활용에 대해 조직위 이사장인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고하고, 관람

차 확대 운영, 저류지 공원 건너편 휴게공간 조성, 장대공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허석 조직위 이사장은 현장 투어를 통해 "기존 구조물을 예술과 정원에 맞는 순천 스타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